



#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예배

**일시** 2024년 6월 16일(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신학대학교 성봉기념관 강당

**설교** 박득훈 목사



유튜브 '건작연'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



건강한작은교회연합

# 예배 순서



예배의부름	주영관 목사, 너머서	
경배와찬양	공경식, 너머서	
공동기도	건작연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 지구촌과 창조세계를 위해	주혜린 청년,너머서 김지윤 청년,너머서 안찬영 집사, 언덕 문갑성 장로, 언덕
성경읽기	마가복음 4장 30-32절	조민호 집사, 새맘
특송	"여기에 모인 우리"	예인교회 율타리 아들람
설교	작음	박득훈 목사
찬양	459장 "누가 주를 따라 "	
성찬	"거룩 거룩 거룩" "사랑의 나눔"	김태완 목사, 언덕
봉헌기도	김은경 권사, 예인	
파송의노래	손잡고 함께 가세	다함께
공동축도	다함께	
알리는 말씀	김태완 목사, 언덕	



# 주께 가오니

Geoff Bullock

올네이션스 역

1. 주께가 오니 - 날새롭게 하 시고 -  
2. 나의눈 열어 - 주를보게 하 시고 -

주의온혜 를 부어주 - 소 서  
주의사랑 을 알게하 - 소 서

내안에발 견한 - 나의연약 함 모두 -  
매일나의 삶에 - 주뜻이뤄 지 도록 -

~ 벗어지리 라 - 주의사랑으로 ---  
새롭게하소 서 -

주 사랑 - 나를볼드 시 - 고

주 곁에 - 날이끄소 - 서 -

독 수리 - 날개쳐올라 가 - 듯 나주님과함

게 일어나걸으 리 주의 사랑안에 ---



# 496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요엘 1:7> — 작사자 미상 • J.P. Webster 曲 —

G C G D

변함 는 주님의 사랑 과 거룩 한 보혈의 공로 를  
 주님 의 깨끗한 보혈 을 날마 다 입으로 간증 해  
 십자 가 튼튼히 붙잡 고 날마 다 이기며 나가 세

G C G D G

우리 다 찬양 을 합시 다 주님 을 만나 볼 때까 지  
 담대 히 싸우며 나가 세 천국 에 들어 갈 때까 지  
 머리 에 면류관 쓰고 서 주 앞 에 찬양 할 때까 지

G D D<sup>7</sup> G

예수 는 우리 를 깨끗 게 하시는 주시 니

G G<sup>7</sup> C G D G

그의 피 우리 를 눈보 다 더회게 하셨 네



#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원제: 주 되심)

전승연

G D/F# Em C G/B Am D

내가 주인삼은- 모든것 내려놓고- 내 주되신 주앞에 나가-

G D/F# Em C D | 1. G

내가 사랑했던- 모든것 내려놓고- 주 님만 사랑해 - 내가

| 2. D G D/F# Em C G/B Am D

- 주 사랑거친 풍랑에도 -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해-

G D/F# Em C D G

주사 랑 내영 혼의반석 - 그 사랑위에 - 서 리 -



사랑의 주님,

2024년 중반이 지나는 오늘, 주님이 따로 구별해서 복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 건작연 교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의미를 망각하여, 성장제일주의라는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고 있을 때, 이렇게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본질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지속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주위에 함께 하는 교회들이 있게 하시고, 늘 필요한 일꾼을 보내셨으며, 긴요한 재정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몸부림에 작지만 소중한 열매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만으로 한국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중하게 피운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진정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머지않은 장래까지 지금 이렇게 손잡은 건작연의 교회들이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계속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는 모든 이들과,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땀과 눈물로 교회개혁의 씨를 뿌리는 일꾼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성장과 확장이라는 구호에 취해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욕망과 번영을 하나님의 뜻이라 오도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반성과 회개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셨던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자기의, 교파 이기주의, 교권투쟁, 비리에 연루되면서 상실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게 하셔서,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 사회적 필요와 현대인들의 지적·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기대를 갖고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교회를 향한 애정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 한국 교회가 늘 성찰하며,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떨쳐 일어서도록 하옵소서.



믿음의 주님,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각자도생의 헬조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맘몬의 영에 내몰린 서민들은 경기침체, 고물가, 청년실업, 고용불안, 전세사기 등으로 절망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분단 상황을 악용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위정자들 이야기와, 국민이 부여한 권리로 부당한 판결과 집행을 한다는 억울한 상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아픔을 보듬을 줄 모르는 가슴 좁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한국 사회를 향한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한국 사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부당한 억압과 부패, 불공정한 대우가 사라지고,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길 간구합니다. 인종, 종교, 성별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몸담은 한국 사회를 주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겸손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주님의 숨씨를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 주님의 세상에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지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폭력의 악령을 거두시고, 주님의 평화의 영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전체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산불, 지진, 온난화 등으로 고통을 토해내는 지구촌의 흐느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서 정성껏 관리할 수 있는 세심하고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창조세계를 보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의 영이시며 하나의 주님이시여,

여기 하나의 건작연 공동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통 514)

# 누가 주를 따라

459

F. R. Havergal, 1877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요 12:26)

ARMAGEDDON: 6.5.6.5.D.REF.

C. Reichardt, 1853

Arr. by J. Goss, 1872

보통으로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가 누가 죄를 떠나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아니 요 크신 사랑 인 해  
3. 환난 핍박 많 고 원수 강하 나 주의 용사 더 욱

주만 따를 까 누가 주를 섬 겨 남을 구할 까  
주만 따르 고 주가 내려 주 신 은혜 힘입 어  
힘이 강하 니 누가 능히 이 겨 넘어 드리 라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 려 나 부르심을 받 아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 하 네 부르심을 받 아  
변함 없는 진리 승리 하 리 라 기쁜 찬송 하 며

주의 은혜 로 주를 따라 가 네 주만 따르 네

제자의 도리

쉬운 기타코드(Capo=1st): Bb → A Eb → D D7 → C#7 Gm → F#m F → E C → B G7 → F#7



## 거룩 거룩 거룩

R. heber 사 J. B. Dykes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전능하신 주여 이룬 아침 우리 주를  
거룩 거룩 거룩 2.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3.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 합니 다 거룩 거룩 거룩 자 비하신 주여  
벗 어 드 리 네 천 군 천 사 모 두 주 게 쿨 복 하 니  
보 지 못 하 네 거룩 하신 이 가 주 님 밖 에 누 노  
찬송 합니 다 거룩 거룩 거룩 전 능 하신 주여



성 삼 위 일 체 우 리 주 로 다  
영 원 히 위 에 계 신 주 로 다  
온 전 히 전 능 하 신 주 로 다  
성 삼 위 일 체 우 리 주 로 다 아 멘



# 사랑의 나눔

Taize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Copyright (C) Taize.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손 잡고 함께 가세

전은주

A B/A G#m7 C#m7

우리 걸어—가는 이—길 이 결코 처음—밟는 길—은 아니—야— 수

5 A E/G# F#m7 B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흔적 있—으 니 우리

9 A B/A G#m7 C#m7

걸 어—가는 이—길 이 낮 설 고 두—려워 보—일 지 라—도— 삶의

13 A E/G# F#m7 B(sus4)

무 게를 뚫고— 흘 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

17 (Am9 Bm7 C D) B E F#m7 A

— 우리 함 께—손 잡 고—가 세 조금 느 리—고 어 려—울 때론 더 디—고 힘 겨—울

21 B(sus4) B G#m7 G#7 C#m7

지 라—도— 주님 부 르—신 그 감—격 불 잡—고— 지 라—도— 주님 부 르—실 그 날—을 향 하—여—

24 1. A B(sus4) B 2. A B E

손 잡 —고 함 께—가 세 우리 손 잡 —고 함 께—가 세

Transcribe by UNIVERSE  
blog.naver.com/renaissancea





작음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작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늘 새 힘을 붙여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일구어 감으로써  
길 하나 열어갈 수 있길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 건작연 연합 예배에 참여해주신 회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뉴스앤조이, 성서한국 등 사회선교단체의 부스가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상반기에 제 2회 건강한 작은 교회 아카데미를 회원교회 교우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잘 마쳤고, 회원 교회 간의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10월 경 온라인 포럼을 계획 중인데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건강한 교회의 가치를 한국 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건작연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도 건작연의 회원으로 받기로 했고,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을 회원교회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허입된 개인 회원 8명,  
회원교회 1곳(전주복음자리교회)



5. 주변에 '민주적인 교회 운영', '재정 투명성', '작은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있다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 교회의 건작연 운영위원회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6. 오늘 건작연 연합예배 헌금은 소속 교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7. 예배실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교우들과 조원들과 추억을 남겨 보시길 바랍니다.
8. 연합예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교우들로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조장의 인도 하에 같이 여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 하시고, 간단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조를 확인하시고, 식당에 표시된 조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건작연)’은 건강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며,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고, 건강한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건작연은 크게 **세 가지 교회 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 1.민주적 교회 운영
- 2.투명한 재정 운영
- 3.평신도 중심 운영

이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교회 소수 리더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 교인 전체의 의사를 교회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 낸 제도가 **민주적 정관(규약), 직분의 재신임제, 투명한 재정 공개, 예배만을 위한 공간 갖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건작연에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1. 작음, 나눔, 비움의 성경적 가치
2. 신앙과 삶의 진실한 공동체
3. 가치 중심의 연합
4. 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5. 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
6. 목회자와 일반성도의 동역